

축산TF 가축방역 관련 내부 토론회 결과보고

2026. 3. 19.(목), 농어업정책팀

□ 추진 개요

- 일시·장소: '26. 3. 18.(수) 10:00~12:00, 위원회 대회의실
- 목적: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및 전문가 토론
- 참석자
 - (내부) 김호 위원장, 최봉순 사무국장, 이은영 농어업정책팀장, 이진석 연구관 등 4명
 - (외부)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윤식 서기관, 지유팜 김선일 대표^{본위원},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 한국 돼지수의사회 엄길운 회장, (사)대한한돈협회 최재혁 상무, 한국양돈연구회 한동윤 회장 등 7명

□ 주요 내용

<발제> 2026년 ASF 확산 차단을 위한 장단기 대책(김선일 본위원)

- ▶ '26년 발생한 IGR-I형은 감염 돼지에서 제조된 혈장단백에서 유래된 것이 유력함
- ▶ '25년 11월 당진에서 발생한 후 역학조사와 사후조치 미흡
- ▶ (단기대책) 신속 정확한 ASF 양성농장 검출, ASF 감염 소지가 있는 제품 돼지에 사용 금지, 도축장 환경시료 검사 강화
- ▶ (중장기대책) 독립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한 상시 조직 필요, 백신 R&D 지원, 공·항만의 국경검역 강화, 거점소독시설 개선, 후보돈/자돈/비육돈 등 구분하여 돼지 수송 System 구축 및 수송차량 세척시스템 개혁

<제안> 한돈협회 의견(최재혁 상무)

- ▶ 혈장단백을 통해 감염된 IGR-I형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100% 보장 및 영업 정상화 기간(2년)동안 농가 경영안정 장치 마련 필요
- ▶ 소득안정비용 지원 규정을 의무규정화, 이동제한 적용대상에서 도축장역학농장 제외 또는 가축운반차량의 1일 다회 운행 허용, ASF 방역지역 설정 범위 축소 등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 적발위주의 역학조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원인규명과 지원중심으로 전환 필요
- ▶ 돼지 유래 사료원료 및 사료에 대한 강화된 관리기준 필요

○ ASF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른 농식품부 조치현황

- ☞ 역학조사 중간결과, IGR-I형이 사료와 불법축산물에서 검출이 되고, 사료와의 연관성이 혈장단백질로 추정되어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농식품부가 직접 사료회사에 사료회수 및 사용중지 요청하였음
- *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미국의 경우에는 2~3년이 걸리고, 최종보고서를 못내는 경우도 있음

○ 신속 정확한 ASF 양성 농장 파악을 위해 국가에서 사용하는 간이검정키트를 민간에 개방하고, 양돈농가 정밀검사 필요

- ☞ 현재 개발된 ASF 간이키트는 민감도*가 60~80%로 낮아 사용되지 않으며, 열화상 등 다른 방식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검사키트의 민감도가 95%이상 나와야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함

- ☞ ASF는 이병률이 낮은 질병으로 정밀검사를 위해서는 검사 돼지의 80%를 검사해야 찾아낼 수 있으므로 거의 불가능하고, 위축돈 또는 폐사체 검사를 통해 위험농장을 찾아내는 것이 효과적*이며, 검사 규모와 시기는 생산자단체, 협회 등과 협의 필요

* 위험농가 스크린 방식으로 함평농가 발견 및 민간 수의사 투입으로 위축돈 발견

○ IGR-I형 ASF는 농장의 방역과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발생 농가에 대한 100% 보상 필요

- 독일은 100% 농가에서 만든 기금으로 살처분 보상하고, IGR-I형 ASF에 대한 100% 보상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다른 축종도 마찬가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ASF는 일종 전염병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살처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베트남처럼 정부 보상이 없을 경우, ASF가 발생하면 출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료 원료에 의해 ASF가 발생해도 보상금이 80%부터 시작하며 대부분 감액기준에 의해 그보다 낮게 보상해 주고 있어, 불합리한 감액 기준의 개선 필요
- ☞ 보상과 관련해서는 법령과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고, IGR-I형 ASF와 관련해서는 환경검사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없앴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0%를 보상함

○ ASF 감염 소지가 있는 제품을 돼지에 사용금지

- 혈장 단백질 중단 시 사료단가가 5~10원정도 증가하고, 연간 사료량 (60만톤)으로 보면 720억 증가되어 자조금(200억)으로 보전이 어려움
- 10년전 캐나다에서 동물성 단백질에 의해 PED가 유행한 사례가 있고, 계열화 사업장에서는 사료원료로 혈장 단백을 사용 안함
- 돼지 1일 1200두 도축 업체가 혈장 단백을 수거안하면 연 10억의 정화 처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물가상승에 원인이 될 수 있음
- ☞ 현재 국내 돼지에 사용되는 혈장단백은 반출이 안되고, 혈분과 혈장단백질은 닭과 어류에 일부 사용하고 있음
- ☞ 유럽은 동종재순환 금지 조치를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사료 공정이라든지 검사를 통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료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별도의 자리에서 심도있는 검토 필요

○ 도축장의 방역 시스템이 열악하여 도축장과 육가공업체간의 교차감염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환경시료 검사 강화 필요

- ☞ 도축장에 대한 방역시스템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야하고 검사한 도축장에서는 혈액을 밀폐된 용기(탱크)에 보관하여 외부에서 병원균이 침입할 수 없었으나, 다른 도축장도 잘 관리 되는지 확인 필요

○ 가축 질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예산편성이 가능한 가축 방역 전담부서 '(가칭) 동물건강복지위원회' 신설 필요

- ☞ 동물건강복지위원회 신설보다는 현재 가축방역심의위원회의 기능 개선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가축 방역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 하고 있음

* 예산 편성권을 가져오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어려움

○ 질병 데이터 확보를 통한 과학적 양돈체계 확립

- 패널티, 국가보조사업, 농가별 방역 등급제 등과 연계하면 농가에 대한 질병 데이터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질병 데이터 확보는 농가들의 도움 없이는 어렵고, 병성검사기관의 의료데이터는 공개하기 어려우며, 데이터 수집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을 주시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음

* 법적 규제, 패널티, 인센티브, 시행 주체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음

○ 가축 방역 시스템 개선 및 거점소독시설 재검토 필요

- 한돈자조금을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는 의견은 협회와 논의 필요
- 수송 차량 문제 등은 한돈협회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임
- 덴마크 등의 수송시스템을 도입하면 최소 20% 출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시범사업으로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임
- 질병이 출하차에 의해 주로 이동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수송 시스템 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안성 도드람 도축장에서는 세차 후 65℃에 30분간 소독하는 방안을 계획 중으로 이러한 민간 거점소독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

- 생축을 상차한 상태에서 거점소독시설 출입 시 교차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에 대한 검토 필요

☞ 거점소독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잘못 운영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있고, 생축차량과 빈차량을 가능한 분리하여 소독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농가, 도축장 등 민간 거점소독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음

* 덴마크는 실제로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용, 장소, 소독시간 등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상당한 비용과 시설이 들어가고 물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가축질병 발생 시 국가 수의사들의 업무과중과 주위의 시선으로 이탈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민간 수의사 활용 시스템 구축 필요

- 동물이 아프면 병원 수의사를 찾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정부 기관이나 민간 병성검사기관이 우선시되는 시스템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의료 체계를 활성화*하는데 집중 필요

*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병원에 수의사를 찾는 시스템

- ☞ 민간 검사 기관을 활성화*하면 농가가 원할 때마다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사받는 형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협업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미국, 유럽 등은 상당히 민간 협력체계를 많이 하고 있고, 기금, 협의체,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데도 있음

○ ASF 백신 R&D 지원 필요

-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계속 살처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가 철학이나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백신에 대한 평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민간 지원 필요

- ☞ 백신개발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민간 업체에도 BL3시설을 개방했으며, 외국 임상 결과도 인정해 주고 있고, 안정성과 유효성*이 있고 감별진단**이 가능한 백신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베트남은 안전성·유효성 없는 백신 사용으로 병원성 회복 등 심각한 상황

** 야외 감염인지 백신에 의한 것인지 구별이 안되면 살처분될 수 있음

○ 도축장 역학 및 가축 이동제한 완화 필요

- 1차 검사에서 ASF 양성인 나와 2월 20일부터 관리되는 농가가 3월 16일날 부경 양돈조합에 출하했고, 그날 다시 ASF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나, 19일전부터 양돈조합에 출입한 농가에 대해 도축장 역학을 걸어 이동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조치로 생각됨

- ☞ 도축장 역학은 굉장히 강하지만 계속 줄이고 있고, 특수한 상황 또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정리되면 규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실제로 부경 양돈조합의 경우에는 3일로 단축하여 시행

- ☞ 가축의 이동제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